

# 주택정원의 민속식물 재배방법

- 임원경제지의 관휴지(灌畦志)·만학지(晩學志)를 중심으로 -

송석호\* · 심우경\*\*

\*고려대학교 대학원 환경계획 및 조경학 전공 · \*\*세계상상환경학회

## I. 민속식물의 중요성

쇠퇴한 도시(urban decline)를 지속가능한 도시(sustainable city)로 재생하려는 방안이 꾸준히 연구되면서 현대의 주거환경은 과학적 접근을 통해 친환경 건축, 생태복원 등 유형의 물리적 환경(physical environment)에 초점을 두며 개선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주택정원문화 또한 마당에는 잔디를 심고 유실수보다는 조경수 위주로 식재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서구식의 기능적 조경에 기반을 두고 조성된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전통문화의 전승이 단절되었고, 급속한 경제성장 이후 주거의 형태마저 아파트와 빌라와 같은 다세대 공동주택이 중심이 되면서 우리의 주택정원에서는 한국의 문화를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문화다양성(cultural diversity)이 강조되고 현대조경의 화두가 다시금 생산적 조경(productive landscape)으로 회귀되면서 주택정원에 식재되어야 할 식물로 그 나라에서 오랜 경험에 의해 구전되며 식용, 약용, 염료, 생활용품 등 실용적으로 재배되어온 민속식물(folk plants)이 주목받고 있다.

민속이란, 풍속이나 습속, 토속신앙 등은 민족의 생활 공감대가 형성해 내는 문화인만큼 일단 정착하면 쉽사리 변화되지 않으면서 상식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반복 전승되기 때문에 생활화된 것(최영전, 1992: 책머리)을 말한다.

결국 민속식물을 주택정원에 식재한다는 것은 한국의 풀뿌리 문화를 정원에 반영하여 계승한다는 장점이 있으며, 푸드마일(food-miles)을 줄이고 제로탄소(carbon free)를 지향하여 환경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고, 자급자족이 가능한 먹거리 정원(edible garden)을 지향하면서 과거 우리 선조들의 주택정원 모습인 문화적이고 실용적인 정원에 다가가는 일인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시민들은 외국의 민속식물인 허브에 더 친숙하며 조경전문가들도 민속식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지식이 부족하여 현실에 올바르게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민속마을에서도 민속식물 이외에 외래식물 및 교란종, 이질적인 경관수목들이 식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민속식물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이 요구되는 바이다.

## II.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오랜 경험에 의해 전승되어 오던 민속식물의 올바른 사례파악을 위해 문헌조사가 선행되었다. 조선 후기 문인 지식층들은 자급자족의 실용원(實用園) 경영을 매우 중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상의 정원인 의원(意園)에서도 가장 핵심으로 두었다.

특히 서유구(徐有渠, 1764~1845)는 정약용에 버금가는 방대한 저술을 남겼는데, 당시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113권 54책으로 엮어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로 편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임원경제지』 113권 중 권14~17에 구성된 『관휴지(灌畦志: 온갖 채소류, 나물류, 해초류, 약초의 이름 고증 및 재배법)』와 권23~27에 구성된 『만학지(晩學志: 과일류, 풀열매류, 각종 나무의 이름 고증 및 재배법)』를 기반으로 현대의 주택정원에 적합한 수종을 선별하고 유용하게 도입 가능한 재배법을 모색하고자 한다(본 원고에서는 관휴지, 만학지의 서론부분인 총서만 요약하여 기술하였으며 민속식물 소재에 대한 각론부분은 학술발표에서 다루기로 한다).

## III. 관휴지(총서/채소류/열매류/약류)

관휴지는 총서, 채소류, 열매류, 약류로 구분되어 정리되었다. 총서에는 밭 다스리기, 파종·모종하기, 물주고 복돋우기, 수확·저장하기로 구분하여 설명해 놓았다. 현대의 주택정원에서 텃밭 조성 시 유용한 정보가 될 만한 사항을 총서에서 선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두둑을 만드는 법: 종자를 심기 며칠 전에 묽은 땅을 일구고 썩풀을 섞어 깔았다가 불을 놓아 벌레들을 없애고 아울러 거름으로 사용한다. 채소류는 대부분 습한 것을 좋아하고 건조한 것을 싫어하며, 봄에 심는 것들은 더욱 바람과 가뭄을 두려워하므로 두둑에 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채소밭은 반드시 가까이 물줄이 있어 댈 샘이 있어야 한다.

- 약초 밭 만드는 법: 약포를 고를 때에 반드시 뒤쪽이 높고 앞쪽이 평평한 땅에 동쪽으로 흐르는 물이 있는 것을 상등으로 친다. 그 흙은 반드시 누르고 부드러운 연한 모래땅을 좋게 치니 이는 약초를 재배하기 위해서이다.
- 두둑을 만들어 약초 심는 법: 무릇 묵은 뿌리가 있는 약체는 싹을 잘라낼 때마다 다시 밭두둑에 거름을 조금 주고 두둑의 흙을 부수어 고르게 하고 물을 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자라난다.
- 종자 선택·보관법: 채소와 과일의 종자는 반드시 물에 넣어 가라앉은 것을 취하여 햇볕에 말려 보관한다. 물에 뜨는 것들은 썩정이다.
- 종자 담그는 법: 눈 녹인 물에 종자를 담가 농작물로 하여금 가뭄을 견디게 하는 방법이 있다.
- 채소 심는 법: 채소를 심을 때에는 그 씨를 반드시 햇볕에 말려야 한다.
- 종자 싹 띄우는 법: 종자는 깨끗이 씻어 바가지에 담아 젖은 수건으로 덮어 두었다가 3일 후에 싹이 손가락만큼 자란 후 파종한다. 먼저 잘 부식된 흙으로 만든 두둑 안에 물을 대고 싹이 튼 종자를 고르게 뿌리고 다시 체로 친 가는 거름흙을 덮어 햇볕에 쬐이는 것을 방지한다. 이 방법으로 하면 채소는 가지런히 나오고 풀이 늦게나와 김매기가 쉽다.

#### IV. 만학지(총서/과일류/채소열매류/나무류/잡식류)

만학지는 총서, 과일류, 채소열매류, 나무류, 잡식류로 구분되어 정리되었다. 총서에는 심는 법, 접붙이기, 물주고 북돋우기, 줍리, 보호하고 기르기, 수확하기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현대의 주택정원 조성 시 유용한 정보가 될 만한 사항을 총서에서 선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심는 시기: 나무 심는 시기는 정월[上時]이 좋은 때이고 2월[中時]이 그 다음이고 3월[下時]이 제일 좋지 않을 때이다.
- 심는 시기: 모든 나무는 마땅히 하현달 후와 상현달 이전에 옮겨 심어야 한다. 기운이 성할 때에는 생기가 전부 가지와 잎사귀에 있다. 그러므로 옮겨 심으면 그 성질이 상하게 되고, 접을 붙이면 그 기운을 잃게 되고, 나무를 베어서 쓰면 윤기가 나무 속에 가득 차 있어 오래 되면 썩벌레가 생긴다.
- 옮겨 심는 법: 옮겨 심은 나무는 곡식을 진흙물에 섞어 뿌리 부분에 날마다 뿌려주면 살지 않는 나무가 없다.
- 옮겨 심는 법: 큰 나무를 옮길 때 구덩이에 가을보리 열 말

정도를 깔고서 심으면 백 그루를 옮겨 심어도 모두 살 수 있다.

- 관요법: 대개 꽃나무는 농분을 꺼리니 반드시 오래된 냉분을 사용하여 물처럼 주어야 한다. 생똥거름은 12월에만 줄 수 있으며 또 반드시 물과 거름을 3:1비율로 섞어 주어야 한다. 정월에는 반드시 물과 똥거름의 비율을 같게 해야 하고, 2~3월에는 연한 가지가 피었다면 새 뿌리가 나와 있는 것으로 비료를 뿌리면 뿌리가 상해서 죽는다.
- 새와 벌레 퇴치법: 다섯 가지 과일(자두, 살구, 대추, 복숭아, 밤)은 정월 초하루에 닭이 울 때에 불로 나무 아래를 두루 비취주면 벌레가 재앙이 없어진다.
- 저장법: 감귤, 복숭아, 자두 같은 것은 7~8할 정도 익었을 때 가지 채 따서 무나 토란에 꽃아 그대로 종이 혹은 마른 짚으로 싼 뒤, 새 항아리에 저장하고 바람이 통하지 않게 하면 이듬해에 꺼내 먹어도 새로 딴 것 같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문화가 결합된 현대의 주택정원에 민속식물 도입의 필요성을 강구하고 올바른 활용을 위해 문헌조사가 선행되었다. 박물학서인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중 『관휴지』와 『만학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주로 민속식물의 재배방법에 관하여 조사되었다. 종합적인 결과는 아래와 같다.

『관휴지』와 『만학지』에는 경험에 의해 구전되어 온 민속식물 정보들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고, 현대의 주택정원에 활용 가능한 재배법이나 잘 알려지지 않았던 유익한 정보들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식물의 자생지, 지방명에 관한 정보, 채소들의 명확한 효능 등 다소 부족한 부분도 지적되는 바이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범승지서』, 『체민요술』, 『사시찬요』, 『금양잡록』, 『농사직설』, 『산림경제』 등의 많은 농서들과 『성호사설』, 『송남잡지』, 『대동운부군옥』 등의 백과사전류, 더불어 근래에 연구된 현존 민속식물자료 등과 함께 비교 고찰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 참고문헌

1. 국립수목원(2011) 한반도 민속식물Ⅷ 경기도지역. 국립수목원 산림자원보존과.
2. 서유구 저, 노평규, 김영 역(2010) 임원경제지 관휴지 01. 서울: 소와당.
3. 서유구 저, 노평규, 김영 역(2010) 임원경제지 관휴지 02. 서울: 소와당.
4. 서유구 저, 박순철, 김영 역(2010) 임원경제지 만학지 01. 서울: 소와당.
5. 서유구 저, 박순철, 김영 역(2010) 임원경제지 만학지 02. 서울: 소와당.
6. 이두현, 장주근, 이광규(1974) 한국민속학개설. 서울: 민중서관.
7. 최영전(1992) 한국민속식물. 서울: 아카데미 서적.